

바로크와 한국전통 “신선한 창조”

■ ‘귀족놀이’ 연출 프랑스 연출가 에릭 비니에



몰리에르의 원작엔
바보·멍청이로
묘사됐던 주르댕,
돈많은 평민 주르댕의
신분을 뛰어넘는
21세기식 후작부인
꼬시기.
17세기엔
불가능했지만
300년이 지난
오늘날엔 충분히
가능한 얘기.
바로크음악, 한국인
배우들의 연기와 춤,
신세대식 사고방식이
어우러진 퓨전 무대.
국립극장 최초의
해외진출
작품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17세기 뮤지컬이죠. 하지만 300여년 전 작품이 아니라 현재의 연극입니다.”

연극연출가 에릭 비니에(Eric Vigner·44·프랑스 국립연극센터소장)가 프랑스 희극의 완성자 몰리에르(1622~73)의 희곡 ‘귀족놀이’(원제 ‘Le Bourgeois Gentilhomme=평민 귀족’)를 확 뒤집어놓을 태세다. 제목을 포함해 ‘다 비꿔’다. 몰리에르 원작과 한국전통예술의 한바탕 만남이자 신선한 충돌이기 때문이다.

비니에가 연출하는 ‘귀족놀이’(11~24일·국립극장 달오름극장)는 국립극장 간판 기획공연 ‘세계명작무대’ 시리즈의 한 작품. 프랑스 브르타뉴의 ‘로리앙(Lorient) 극장’의 가을시즌 공식 레퍼토리(10월11~16일)로 선정됐다. 한국 배우·스태프가 ‘돈 받고’ 프랑스 관객을 만나는 국립극장 최초의 본격적 해외진출작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후작부인, 그대 아름다운 두 눈에 사랑으로 죽을 것만 같소.”

비니에는 주인공인 졸부 주르댕이 후작부인에게 보낸 연서(戀書)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귀족놀이’는 전박한 부르주아의 문화적 허영을 비웃는 프랑스 버전의 ‘양반전’이었다. 하지만 비니에는 지난 300여년간의 ‘귀족놀이’ 공연이 작품의 핵심인 ‘주르댕의 러브 스토리’를 빼뜨렸다고 주장했다. 주르댕은 바보·멍청이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로 환생하는 셈이다.

그는 “돈 많은 평민인 주르댕에게 유일하게 없는 것이 바로 문화(음악·무용·검술·철학 등)이며 주르댕이 후작부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런 문화를 익히는 게 작품의 줄거리”라면서 “이 작품의 희극성은 엄청난 열정으로 무장한 채 자기가 모르는 세계를 개척해나가는 주르댕의 과도한 진지함, 순진무구한 사랑의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세상엔 문화만 없기 때문에 주르댕의 꿈과 환상은 우리 시대의 연극을 뜻하기도 한다”면서 “연극은 환상을 꿈꾸는 일이며 이는 곧 사랑인데 우리 인생의 귀를 잡아끄는 게 바로 실용성 없는 책·연극·예술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작품의 또다른 특징은 한국배우들의 연기와 춤, 한국전통미학이 어우러지는 퓨전 무대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국립극악관현악단 10명, 국립무용단 6명, 국립오페라단 3명, 국립극단 11명 등 국립예술단체 4개 단체의 단원들이 프랑스측 스태프들과 호흡을 맞춘다. 막간·극중의 춤은 학춤·갈춤·부채춤이고 무대·의상도 한·불 스태프의 합작이다.

음악의 경우 영화 ‘파리벨리’에 나오는 바로크 음악을 연주했던 프랑스 음악가 장 바티스트 콜리의 음악을 국립극악관현악단의 라이브로 연주된다.

비니에는 “몰리에르가 초연 당시 사용했던 바로크 음악은 현대음악보다 자연스러운 음악”이라면서 “한국악기 소리는 자연의 소리에 가까워 들

기에 편한데 한국악기 소리 자체가 17세기 유럽악기의 그것보다 더 바로크적”이라고 만족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바로크 음악에 전박함이 다소 묻어 있다면 이번에 박위철·조원행씨가 편곡한 곡들은 그 전박함을 휘발시킨 느낌이 든다”면서 “너무 감동 받았다(속어로 ‘뽕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배우들에 대해 “새로운 작품이므로 새로운 젊은 배우와 작업을 하고 싶었다”면서 “한국배우들은 열려 있고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며 처녀성·순수함이 있다”고 말했다. 언어 등이 질적인 두 문화의 충돌에 대해서는 “소리를 통해 모든 것이 보이도록 연출하고 있으므로 언어장벽은 사소한 문제”라면서 “인류 보편적인 해석을 해낸다면 한·불 관객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귀족놀이’ 주인공은 늘 40~50대 배우였으나 이번에는 국립극단 간판배우로 성장하고 있는 이상직씨(38)가 맡았다. 후작부인은 곡벽화씨(31), 이밖에 김종구·이영호·조은경씨 등 40대 중견배우와 한운춘·서상원·이은희씨 등 20~30대 젊은 배우들이 ‘귀족놀이’의 열정과 자유로움을 연기한다.

과연 프랑스와 한국전통이 만나면 어떤 새로움이 창조될까. 비니에는 새로운 실험을 진두지휘하는 창조자이면서 그 결과를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최초의 관객인 듯했다. 작품뿐 아니라 한국의 음식·문화에 관해서도 호기심이 흘러넘쳤다. 문의 (02)2280-4115~6 또는 www.ntok.go.kr

김중식기자 uyou@kyunghyang.com
73호 M3 9/4



프랑스 연출가 에릭 비니에(사진 위)와 한국배우들이 출연하는 그의 연출작 ‘귀족놀이’의 한 장면.